청 렴(淸廉) [명사]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

싱싱한 대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언제나 푸를것 같은 대나무가 어느 부분이 막혀
땅의 영양분이 흐르지 않으면 색을 잃고 썩어갑니다. 막힌 것이 뚫리지 않으면 계속 썩어갈 것입니다.
공동체 속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때는 푸르른 대나무처럼 아름답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개인의 이익을 취한다면 썩어가게 됩니다.
한 개인이 제모습을 잃어갈때 공동체도 썩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Happy Together KEPCO E&C 한국전력기술

201705

KEPCO E&C Family

www.kepco-enc.com

newpower, **new**standard

2017년 5월호

KEPCO E&C Family

Energy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힘.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KEPCO E&C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04 Focus | 프랑스 아시스템(Assystem)사와 협력관계 구축 외

08 청백리 | 이동근 상임감사, 한울현장 방문 외

10 명품기술 | 소구경배관지지대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And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KEPCO E&C Family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4 Photo Gallery | 연화지

16 우체통 | 둔황 견문록

20 문예 | 옥상정원과 세링게티

Communication

더 현명하게, 더 여유롭게
더 건강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과 소통합니다.

24 新성장지도 | 바람에 실려 온 목향과 꽃향 – 부석사

30 Storytelling | 단오(端午)날에 씨름을 구경하다

32 기자칼럼 | 아빠로 산다는 것

34 생활과 과학 | TV가 나를 감시한다? 전자기기 도청 어디까지

36 Culture | Festival, Exhibition, Book, Movie

38 KEPCO E&C NEWS | 제4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외

40 한기氏의 청렴윤리 |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42 Inside Outside | 참사랑봉사단 외

44 인포메이션 |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46 문예 | 아야!

47 Recruit | 2017년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채용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통권 424호 · 발행인 박구원
발행일 2017년 5월 10일
발행처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록일 1983년 7월 20일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전 화 054-421-3114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이 메 일 business@kepco-enc.com
인 쇄 위즈(070-8808-7990)

프랑스 아시스템 (Assystem)사와 협력관계 구축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확대 및 해외 원전 진출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의

박구원 사장과 프랑스 아시스템(Assystem)社 스테판 오바비어(Stephane Aubarbier) 에너지 인프라부문 사장은 4월 17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양사간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마련과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신규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Barakah) 원전의 장기 엔지니어링 지원사업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아시스템社는 프랑스 최대의 엔지니어링 종합회사로 우리 회사와 영국의 아멕포스터휠러(AMEC Foster Wheeler)社와 함께 모멘텀 합작회사(MOMENTUM Joint Venture)를 구성해 2016년부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의 건설관리용역(CMA : Construction Management-as-Agent services)에 참여하고 있다.

박구원 사장은 "해외시장에서 양사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이 많을 것"이라며 "글로벌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아시스템社와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공동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 원전시장 등에서 추가적인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 핵융합 에너지의 실용화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EU 등 선진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초대형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

감사자문위원회 도입

- 신뢰받는 청렴공기업 실현 위한 전문가 자문체계 구축

회사는 4월 14일 '2017년도 감사자문위원위촉식 및 상반기 감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감사업무 역량 제고와 청렴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다.

회사는 연 2회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자문위원에게 자문도 받게 된다. 감사자문위원으로는 이시백 전(前)감사원 과장, 법무법인 신우 박종흔 대표변호사, 유에이썬 지용주 대표이사, 이엔티 유병주 상임감사, 동남회계법인 정성훈 이사 등이 위촉되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2017년도 상반기 감사자문위원회에서는 우리 회사의 감사 업무 현안과 향후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이뤄졌다. 회사는 자문단과 꾸준한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뢰받는 청렴공기업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편, 회사는 2017년도 중점추진 목표로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1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감사원 자체 서면평가 A등급' 달성을 선정하고 청렴윤리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청렴윤리 특강, 청렴도 향상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온라인 청렴윤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천대학교와 계약학과 추진

-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을 위한 융복합에너지공학과 개설

회사는 지난 3월 29일 김천대학교와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구원 사장과 김천대학교 윤옥현 부총장이 참가하였으며, 융복합에너지공학과를 계약학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계약학과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할 때 대학과 계약을 통해 정원 외로 개설·운영하는 학위 과정이다.
회사는 2013년부터 고졸 공개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하면서 고졸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융복합에너지공학과는 건설, 기계, 전기, 전자 등의 전공과정을 융합한 학과로서 플랜트사업관리, 기계 CAD(Computer Aided Design, 컴퓨터 지원 설계), 플랜트 CAD 직무능력 등을 갖춘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학년당 모집정원을 20명 내외로 하고, 학생들의 소속감 및 유대감 강화를 위한 정기모임활동 지원과 전시회 및 산업체 견학 등을 통해 교육 과정의 내실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일 야간과 토요일 주간을 이용한 주 2회 수업으로 진행함으로써 직장생활과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학업동기 부여를 위해 다양한 장학금 제도도 유치할 예정이다.
박구원 사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선취업 후진학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는 우수한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엔지니어링 인재 기반의 확대와 지역 인재의 육성에 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2016년도 우수 기술개발과제 발표회 개최

회사는 2016년도 수행 우수 기술개발과제 발표회를 3월 27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박구원 사장을 비롯한 원자로설계개발단장, 미래전력기술연구소장, 주요 기술부서장 및 관련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상식, 과제별 발표와 질의응답, 사장님 강평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우수 기술개발과제는 2016년도에 수행된 82건중 종료가 이루어진 27건을 대상으로 각 기술심의 전문위원회와 본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거쳐 최종 6건이 선정되었다.
박구원 사장은 "실용적 가치가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사는 중장기 경영전략의 한 축으로서 기술개발이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우수상 ▶ ToSPACE 실용화 개발 및 인증 추진 **(재료연구기술그룹 황경모 부장)**
우 수 상 ▶ 일체형원자로상부구조물 최적설계 기술개발 **(기계설계그룹 강태교 부장)**
▶ FPGA 기반 중대사고 대처 제어설비 설계기술 구축 **(원자력 계측제어기술그룹 김진구 부장)**
장 려 상 ▶ 원자로냉각재계통 상세 구조해석모델을 적용한 구조해석 절차 개발 및 사업 적용성 평가 **(기계설계그룹 김정용 차장)**
▶ 표준원전 불평형고장해석을 통한 개방상(Open Phase Condition)영향 분석 및 개선 기술개발 **(원자력 전기기술그룹 이청준 부장)**
▶ 해상풍력발전 사업타당성 분석 Tool 개발 **(신재생환경기술그룹 김일배 상무)**

이동근 상임감사, 한울현장 방문

이동근 상임감사는 4월 12일 한울현장을 방문하여 최기원 현장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현장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청렴특강을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청렴이 가장 많이 남는 장사다'를 인용하면서 청렴윤리 정착을 강조했다. 특히, 직원 상호간의 신뢰와 소통, 협력사 등의 대외업무에 있어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 이희선 원자력본부장과 이강혁 제1건설소장을 방문하여 원자력산업계 주요현안과 우리 회사와의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2년 연속 청렴도평가 1등급인 한울발전소의 지역상생협력 등 청렴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한울현장을 시작으로 국내 현장사무소 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렴윤리 정착을 위한 노력에 현장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개최

– 외부 전문가와 청렴도 향상방안 논의 –

회사는 지난 3월 23일 이동근 상임감사와 임원택, 윤승욱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제1차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사는 2015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부패근절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운영협회의에서는 2016년 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결과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청렴도 향상방안 및 반부패 추진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동근 상임감사는 "청렴윤리와 감사업무에 경험이 많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청렴문화 제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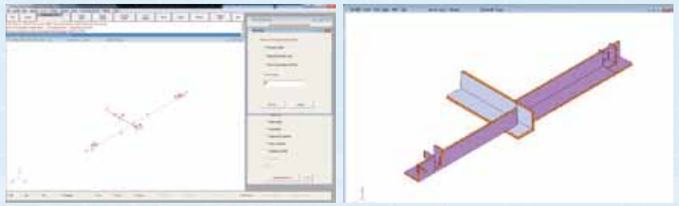
소구경배관지지대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원자력발전소 소구경배관지지대는 호기당 물량이 약 26,000여개(신고리 3,4호기 기준)로 설계물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현장 후순위 설치공정에 따른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이 필요한 역무로써 전량 우리 회사 협력회사를 통한 외주역무로 수행되고 있다. 소구경배관지지대는 설계하중 크기가 작고(최대 45Kg, 1,000 lbs 범위 이내), 현장 설치여건을 고려한 시공편의성 고려 등이 주요 설계인자가 되므로 경량의 앵글부재를 주로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소구경배관지지대는 이러한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약 14종의 표준형 소구경배관지지대 구조형식을 지정하여 부재 및 부재길이 별로 최대 허용하중을 산출하고 테이블화하여 이를 설계에 활용하고 있으며 설계 시에 약 70% 이상의 높은 활용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건설원전에서는 종래의 허용응력설계법(Allowable Stress Design, ASD) 대신 하중저항계수설계법(Load Resistance Factor Method, LRFD)에 기초한 새로운 설계요건(KEPIC SGE, 2008 Ed.)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 회사 등록 협업사의 영업규모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고려할 때 신규요건을 반영한 설계품질 확보 방안은 회사가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하여 그 결과를 협력회사에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협업역무의 업무효율성 제고/설계품질 확보 및 신규설계요건을 반영한 설계 Tool 개발/협업사 제공을 목표로 상용 구조해석프로그램인 GTStrudl 프로그램 사용자 지침 및 구조건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소구경배관지지대 구조해석 전용 GTStrudl 사용자 지침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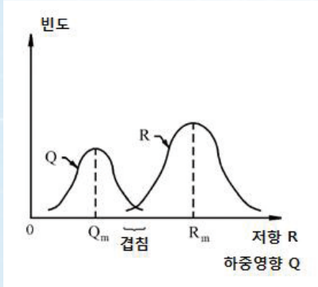
GTStrudl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매뉴얼은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의 특성상 지나치게 많은 기능과 입력변수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사용자가 활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또한, 소구경배관지지대 설계역무를 수행하는 협업사 직원의 잦은 교체와 이로 인한 숙련된 경험기술의 단절이 협업역무 품질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GTStrudl에 처음 입문하는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지대설계 실무에 특화된 사용자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석지침서에는 소구경배관지지대 부재의 물성치부여, 기하모델링 작성, 하중부여 및 해석결과 확인법 등 실제 설계절차에 따라 각 단계별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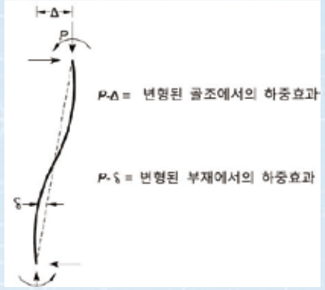
[그림 1] 소구경배관지지대 GTStrudl 기반 기하모델링 및 3D 모델 형상(예시)

신규 코드요건 적용 설계절차/지침 및 구조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한 신규건설원전에서 신규설계요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하중저항계수설계법은 확률론적 수학 모델을 접목하여, 구조부재나 상세요소의 극한내력 또는 사용성한계, 피로강도와 같은 각종 한계상태에 바탕을 두고 극한 또는 한계하중에 의한 부재력이 부재의 극한 또는 한계상태내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설계법이다.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대한 확률론적 기본개념에서 하중영향 Q와 저항계수 R은 통계적으로 독립된 무작위 변수로 가정한다. [그림 2]는 가상의 경우에 Q와 R에 대한 상대빈도분포(도수분포)를 하나의 좌표 위에 별개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저항력 R이 하중영향 Q의 오른쪽보다 클 경우 어떤 한계상태에 대한 안전의 여유가 존재하나, 두 곡선의 겹치는 정도는 R_m과 Q_m의 상대적 위치와 분산에 달려 있다.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도설계는 식 Ru<ØRn에 따라서 설계된다.



[그림 2] 하중영향 Q와 저항 R의 빈도분포



[그림 3] 보-기둥의 P-Δ 및 p-δ 효과

식 Ru≤ØRn에서 좌변 Ru는 SEI/ASCE7에 규정된 하중에 근거하여 계산된 소요강도를 나타내며, 우변 ØRn은 부재에 확보된 구조내력한계 또는 설계강도를 나타낸다.

하중저항계수설계법 적용 시 부재설계와 더불어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법은 직접해석법, 확대된 1차해석법, 2차해석법 등이 있는데, 층간변위비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접해석법이 가장 좋은 대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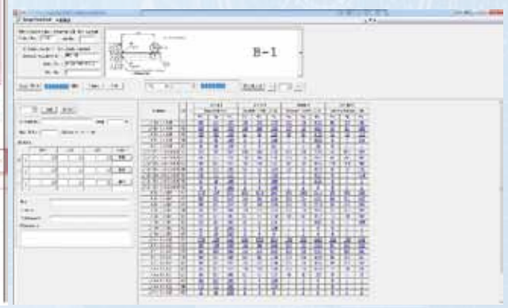
직접해석법이란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3가지 요소들을 모델링 및 해석적으로 직접 반영한 해석법이다. 강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가장 중요한 3요소란, ①축력과 모멘트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 증폭 등의 2차효과(P-Δ 및 p-δ효과[그림 3 참조]), ②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직 및 수평도의 오차(즉 기하학적 불안정성 : 초기변형/제작/시공오차), ③잔류응력(재료적 불완전성)과 축력의 영향에 따른 조기 부재 강성저하이다.

특히, 제작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직 및 수평도의 오차로 인한 안정 저해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가상하중(Notional Load)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상하중은 각 골조층에 횡하중으로 적용되며 안정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가상하중의 크기는 구조물 각 층의 비연직성을 층고의 1/500로 가정하여 0.002Yi (Yi : 층별 수직하중)로 표시되며, 소구경배관지지대의 경우 KEPIC SGE의 부록요건에 따라 0.001Yi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하중저항계수를 하중조합식에 적용하고, 안정성 설계를 위한 직접해석법을 GTStrudl에 적용하여 소구경배관지지대를 설계할 수 있도록 GTStrudl 해석용 입력파일 템플릿을 제작하였다. 본 템플릿은 지지대의 모델링부터 하중부여, 가상하중 및 CODE 변수지정 방법까지 수록되어 있어, 소수경 배관지지대를 처음 설계하는 실무자도 바로 적용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그림 4 참조] 또한 신규요건을 반영한 소구경배관지지대 설계절차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한 소구경배관지지대 허용하중표를 생산함으로써 소구경 배관지지대 설계 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실무자가 손쉽게 허용하중 및 실제하중을 선택하여 소구경배관지지대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그림 5 참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기술개발과제에서 수행한 최신 설계요건(KEPIC SGE)을 반영한 GTStrudl 프로그램 기반의 소구경배관지지대 구조해석 절차 및 구조안전성 평가용 전산 Tool들을 국내 신규건설원전 및 가동원전 사업의 상세설계 협업역무 수행시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관련 설계분야의 기술력 제고뿐만 아니라 협업역무의 인력절감 및 품질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C

[그림 4] GTStrudl 해석용 입력자료 템플릿



[그림 5] 표준형지지대 구조건전성평가 프로그램

& And

오늘은 멀리 사는 지인의 결혼식이 있는 날입니다.

맞춰 둔 알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를 빠져 나옵니다.
드리워진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심호흡 몇 번으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난밤의 걱정들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잠이라는 선물 덕에 머릿속이 말끔해졌습니다.

아침밥을 챙겨 먹고 여유롭게 옷장을 뒤집니다.
원색을 피하고 무채색의 옷을 선택합니다.
치장에 관한한 자연스러움을 추구 한다기보다
천성적 게으름이 한몫을 합니다.
누군가는 매일 하는 화장을 나는 일 년에 기껏해야
다섯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만 하고 삽니다.

의전과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약간의 불이익은 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처럼 거울 앞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달라진 모습에 가족들의 찬사가 이어집니다.
오월의 싱그러움에 동승한 듯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소소한 기쁨이 큰 아픔을 이길 때도 있습니다.
아파트 담장을 타고 오른 넝쿨 장미에
자잘한 꽃망울들이 줄줄이 부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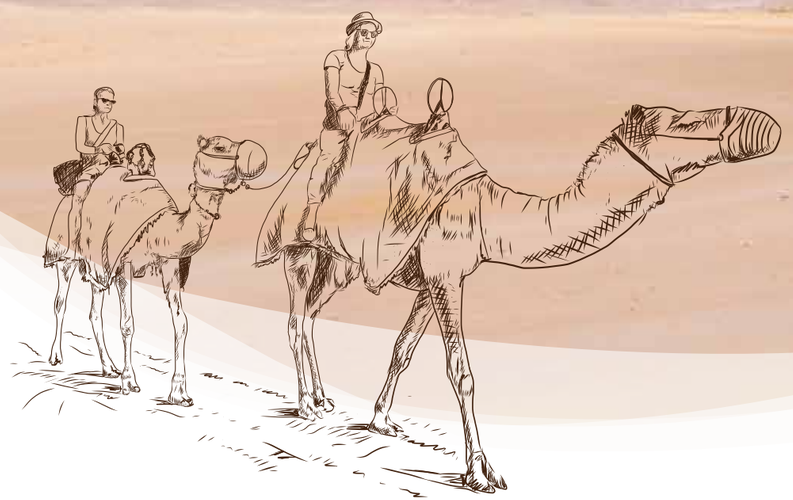
행복은 관계의 안정감에서 옵니다.
가족은 물론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
교감되는 무언의 신뢰가 서로를 기쁘게 합니다.

연화지[鳶華池]

경북 김천시 교동에 있는 연못으로 매년 4월경 벚꽃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초기에 농업용수 관개지로 조성된 저수지였다.
당시 물이 맑고 경관이 좋아 풍류객들이 저수지 한가운데에 섬을 만들고 정자인 봉황대[鳳凰臺]를 지어 시를 읊고 풍류를 즐겼다.
그 후 농업용 관개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가 1993년 김천시가 8,885평(29,372㎡)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둔황 견문록

'꺼지지 않는 찬란한 불꽃', '타오르는 사막의 횃불' 이라 불리는 도시. 둔황에 도착했다. 기원전 111년 전한의 무제가 흉노의 남하를 막기 위해 쌓기 시작한 만리장성(발해만에서 타클라마칸 사막에 이르는 약 7,200km의 성)의 서쪽 끝 봉화대로 사용하던 지역이다.



둔황시가지

둔황시가지

실크로드의 둔황

둔황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40mm 안팎으로 말 그대로 버석버석한 땅이다. 이곳의 장성은 건조한 기후 때문에 흔히 보는 석벽이 아니라 짚과 흙을 혼합해 직사각의 벽돌 형태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담장이다. 적군의 말과 낙타와 양떼가 뛰어넘지 못할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너와 나를 가르는 경계의 표석인 장성에 올라 사막을 내려다본다. 불모의 땅, 황량한 사막에도 곳곳에 회색빛을 띤 풀과 키 낮은 관목들이 자라고 있었다. 풀을 보러 사막으로 걸어 들어갔다. 모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법 단단한 땅이었다. 대지에 딱 붙어 퍼져 나가는 식물의 강인한 생명력에 다시 한 번 감탄했다. 풀잎은 가시처럼 뾰족하고 단단하다. 선인장은 아니고 사막에서 자생하는 풀이다. 그 풀을 의지하며 사는 곤충도 있다.

어디서 모래바람이 휘리릭 불어온다. 바람 속에 물기가 묻어 있었다. 비다. 함께 여행을 온 친구는 자기가 비를 몰고 왔다고 호들갑을 떤다. 모두들 비를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신기해하며 즐거워한다. 눈썹을 적실 정도의 적은 양이었지만 특별한 경험을 했다. 친구는 지금도 두고두고 그때 그 비 이야기를 한다. 둔황은 과거 한때 과주(瓜州)로 불리다 사주(沙州)로 불렸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여신 서왕모(西王母)가 삼위산에 살 때 서왕모가 주최한 신선들의 잔치에 처음 초대된 서쪽 끝 도괴국(桃槐國) 왕이 과실을 가져온다. 보름달같이 커다랗고 껍질은 짙푸른 초록색을 띤다. 반으로 잘라보니 속살은 핏빛처럼 붉고 한입 베어 무니 부드러우면서 달콤한 과즙이 입안을 흥건히 적신다. 처음 먹어보는 맛에 흡족한 서왕모는 서쪽에서 가져온 과일이라 하여 서과(西瓜)를 수박이라 불렀다. 어느 날 월궁(月宮)에 사는 항아(嫦娥)가 삼위산에 놀러 왔다 수박 맛에 반한다. 마음씨 고운 항아는 목말라하는 인간들을 위해 수박을 선물한다. 그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서왕모는 화가 치밀었다. 바람의 여신에게 명령하여 한바탕 광풍을 일으켜 과주의 수박을 단숨에 안서(安西) 지방까지 날려 버렸다. 수박 대신 거센 바람 타고 날아온 모래 때문에 사주로 불리게 되었다.

둔황의 가장 큰 길은 양관로이다. 비천상(飛天像)(둔황 석굴 벽화에 공통으로 그려져 있다)이 서 있는 로터리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갈라진다. 시내는 그다지 크지 않아 둘러보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뙤약볕 아래에서는 속절없이 덥지만 그늘로 들어서면 땀을 식히기에 충분하다. 사주시장에 들러 수박과 특산품인 이광(서한 때 흉노 토벌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장수 이름) 살구를 샀다. 연한 살색이 도는 아기 주먹만 한 크기에 껍질은 얇고 과육은 실하며 특유의 향이 코끝에 스몄다. 입안에 침이 고인다. 나는 살구 맛에 반해 요량 없이 먹다가 크나큰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배가 살살 아파 화장실을 수 없이 들락거렸다. 더위와 배탈에 녹초가 되었다. 끝없는 식탐의 말로는 식은땀으로 얼룩진 얼굴에 입 꼬리가 축 쳐진 민망한 웃음으로 마무리됐다.

막고굴

월아천

고비사막

둔황 봉화대

명사산, 월아천, 막고굴

사막의 눈물, 명사산의 눈물샘, 월아천(月牙泉)은 땀방울과 눈물방울로 가득 차올라 지나가는 바람에도 찰랑거리고 있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명사산 동쪽 깎아 세운 듯한 낭떠러지에 자리잡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막의 대화랑(大畵浪) 막고굴(莫高窟)에 당도했다. 천불동이라고도 불리는 불교 유적 석굴군을 구경하기 위해 인종과 신앙을 초월해 세상 사람들이 모여든 듯하다. 도를 찾아 굴을 파고 그 속으로 스며들던 스님은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일까. 어쩌면 저잣거리에서도 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다. 석굴 입구에는 '사진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안내표지가 있다. 둔황석굴의 상징인 96굴로 불리는 북대불전 9층 누각 앞에 섰다.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석불이 안치되어 있는 곳. 말을 잃고 그저 고개를 쳐들고 멍하니 바라 볼 뿐이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날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기원했다.

비천상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여행객에게 참관이 허락된 굴은 여남은 개.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됐다는 17호 석굴은 어둠에 잠겨 있다. 혜초 스님은 어떤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적어 내려갔을까. 이 가련한 중생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손전등에 의지해 먹먹한 속을 들여다본다. 17굴은 16굴에 딸린 굴이다. 1900년 어느 봄날 16굴을 수리하던 도사 왕원록이 모래로 막혀 있던 벽을 허문다. 사방 3m의 방을 가득 채운 고문서들이 천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견뎌내고 있었다. 프랑스 동양고고학자 펠리오가 발굴한 위대한 서적, 왕오천축국전은 현재는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영화촬영장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을 마주하며 한 노승이 불경을 구하러 제자 셋과 함께 서역으로 가고 있다. 허기와 갈증과 위험에 허덕이던 노승은 제자들에게 물과 식량을 구해오도록 시켰다.

첫째 제자와 둘째 제자는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을 대며 돌아온다. 고지식한 셋째 제자만 묵묵히 삼위산을 향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잠시 나무그늘에서 쉬는 동안 깜빡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삼위산 봉우리에 불광이 나타났다. 셋째 제자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서역 행을 멈추고 산 맞은 편 석벽에 동굴을 뚫어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을 시작한다. 노승의 이름은 낙준(樂傳)이라 불렸으며 처음 굴을 판 셋째 제자 이름은 지근(智勤)이였다. 동굴 위의 동굴, 동굴 옆의 동굴, 큰 동굴과 작은 동굴, 깊은 동굴과 얕은 동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심한 고요 속에 침잠한다. 세속의 인간들만이 거주지의 높낮이와 너비를 따지며 시끄럽다.

어느 별 좋은 봄날, 세상에 첫 나들이 나온 새끼오리들 마냥 가이드를 놓칠 새라 뒤꽁무니를 졸졸 따라간다. 어눌하고 어색한 현지가이드의 한국어 발음을 이해하려 귀를 쫑긋 세웠다. '날아라 슈퍼보드'의 저팔계 성대모사를 섞어 해설을 한다. 여독에 지친 관광객을 파안대소하게 하는 재주를 가졌다. 여행에 소소한 재미를 더해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도 행운이다. 동굴이 전하는 뜻을 오롯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두 손을 모았다. E&C

옥상 정원과 세링게티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가 지방으로 내려오기 전에 출근하던 사무실엔 아담한 옥상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잠시 올라와 바람을 쐬거나, 담배 한대 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는 커피 한잔과 함께 소소한 담화를 하는, 가끔 퇴직자가 있는 부서는 단체 사진을 촬영하며 아쉬운 추억을 만드는 곳이었다.

대부분 잔디가 깔려있고 드문드문 만들어진 작은 화단에는 꽃들도 자라고 있어서 콘크리트로 덮인 도시에서 모처럼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물론 콘크리트 위에 흙을 얕게 돋아서 만든 정원이니 풀과 꽃들의 뿌리가 더 자라지 못하게 구속하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을 갖기도 했지만 녹음방초는 아니어도 지척에서 작게나마 계절의 정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임에는 분명했다.

옥상정원은 협소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꽤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었는데, 는개가 낀 아침이면 잔 털 끝에 영롱한 이슬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여우꼬리를 닮았다는 수크령, 통닭구이처럼 하늘 향해 발을 올리고 벌 받는 것 같은 하늘 메발톱, 땅 위에라도 앙증맞은 별을 새기고 싶었을까? 별 같은 꽃을 피우는 돌단풍, 흰색 밥만 먹으니 싱거워 분홍색 좁쌀 밥을 섞은 듯한 꽃이 피는 삼색 조팝나무, 보라색 초콜릿 알갱이를 묻힌 막대과자 같은 맥문동, 개망초나 들국화와 비슷한, 보라색 꽃받침을 후광처럼 달고 다니는 쑥부쟁이, 궁중 악기인 편종 모양의 종을 주렁주렁 매달고 바람 불면 종소리 보다는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날 것 같은 둥글래, 제 몸에 선탠을 해서 줄무늬를 넣은 무늬 비비추, 독신으로 사는 게 자신 없어 암수 꽃을 달고 사는 수호초 등이 봄부터 초가을까지 피고 지는 정원이었다.

여름이 되어 잠자리까지 날아 다닐 때쯤 되면 때를 맞춰 가로수에도 매미들이 떼로 몰려와 짧은 삶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울기도 했으며, 더 놀랄 일은 옥상에 메뚜기까지 살기 시작했던 것인데, 수컷은 '따다다다' 소리로 존재감을 뽐냈고 뒷다리 두 개를 잡으면 몸이 방아 찧는 것처럼 위 아래로 움직인다 해서 방아깨비라 불리는 손가락만한 굵기의 암컷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엉금엉금 기어 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옥상에 메뚜기들이 살게 되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옥상 정원은 꽃이 피고 잠자리가 날고 메뚜기가 뛰어 다니는 자연생태 공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방학 숙제를 하기 위해 곤충 채집을 하던 초등학생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곳이 되기도 하였다.

또 어디서 날아왔는지 까치가 날아오기 시작해서 이젠 새까지 날아다니는 구색을 다 갖춘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며칠 동안 까치가 옥상에 날아 오나 싶더니 어느 날부터 까치들은 풀밭에 내려 앉아 뭔가를 열심히 쪼고 있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아뿔싸! 풀 속에 기어 다니는 벌레와 곤충들을 쪼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돌을 던져 까치들을 쫓기 시작했다. 이 소담스럽고 평화로운 환경을 한 순간에 깨버린 괘씸하기 짝이 없는, 옥상정원의 절대적인 포식자 까치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건 역부족이었다. 종일 옥상을 지키며 까치를 쫓을 수도, 과일농장처럼 그물을 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 보니 옥상의 메뚜기들과 풀벌레들은 어디로도 도망 못가는 어항 속 물고기 신세가 되어 까치의 공격에 그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가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순식간에 옥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었고 메뚜기는 그 잔인한 적자생존에 의해 멸종된 가엾은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렇게 메뚜기들은 사라졌고 먹잇감이 사라진 곳에 당연히 까치도 오지 않게 되었다. 한때 작은 정원의 주인공이었던 메뚜기와 까치들의 화양연화는 그렇게 끝나버렸고 옥상 정원은 공허한 상태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야근하는 동료 직원들과 저녁을 먹기 위해 자주 가는 국밥 집에 들렀을 때 식당주인은 뜬금없이 "어떡하죠? 다음 달부터 식당 영업을 못해요. 임대료가 너무 올라 감당할 수가 없어요."라며 거의 울상을 짓는 것이었다.

그동안 많은 직원들의 저녁 한 끼를 맛있게 해결해 주던, 우리 같은 월급쟁이에게 잘 어울리는 식당이었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다. 비싼 임대료에 쫓겨나는 아주머니를 위로하고 나오는 걸음은 영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은 비단 이 식당뿐이 아니었다. 어느 날 빵을 사기 위해 동네시장 어귀 빵집에 들렀을 때 빵 만큼이나 푸근하게 생긴 주인은 "이제 빵집도 문 닫을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며 한숨을 크게 쉬는 것이었다.

"아니 왜요. 이 빵집은 오래 돼서 동네 단골손님도 많고 장사가 잘되지 않았나요?"라는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주인이 가리키는 도로 건너편엔 유명 연예인의 윙크하는 대형 사진과 함께 어느 대기업 계열의 빵집이 개업한다는 큰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이었다. 그때 불현듯 옥상의 까치와 메뚜기, 비싼 임대료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 아주머니, 그리고 대기업에 잠식당하는 빵집 주인 얼굴이 순서 없이 오버랩 되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치열하게 먹고 먹히는 동물들의 삶이 적나라하게 펼쳐지는 정글이나 다를 바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또한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서 취직 못하는 5포, 7포 세대의 젊은 청춘들, 그리고 삶의 환경이 좋은 유럽으로 이민을 가기 위해 돈을 모은다는 이민 계, 삶의 질을 극명하게 표현하는 헬 조선 이라는 단어가 회자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며, 옥상에서 멸종된 메뚜기는 우리에게 도래할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부도덕한 자본주의가 만든 세링게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섬뜩한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E&C

Communication

오랜만에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으로 나름의 삶을 살다가
주름 생긴 어른이 되어 소주 집에서 만났습니다.
남녀 없이 반가움에 손을 마주 잡았고
한잔 두잔 술잔이 오가자 금세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들 살았냐고
미술 시간마다 칭찬을 받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해?” 라는 물음에
그는 여전히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넌 참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니까 좋겠다.”
모두들 부러워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허용되지만
자신에게만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미술을 하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직업을 왜 선택하느냐고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희박하고
고생길이 훤한 직업이라고 얼음장을 놓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른 예술가들을 만나면 말합니다.
‘멋진 직업을 가지셨군요.
저도 한때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음악을 좀 했었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선입관을 갖고 삽니다.
학벌이나 외모, 직업, 인종, 하물며 가치관까지.
요즘은 많이 열린 사회가 되었으나 여전히
내 자식일 때는 그 벽을 쉽게 넘지 못합니다.

자신은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산걸 후회하면서도...

바람에 실려 온 목향과 꽃향 부석사

벚꽃이 지면 봄도 지는 줄 알았다.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잦아들면, 곧 신록이 물들고 덤덤히 여름을 향해 치닫는 줄로만 알았다. 산사의 오월은 이제야 봄이 절정이다. 소백산의 철쭉은 오월이 되어야 비로소 기지개를 피고, 산바람에 뒤섞인 꽃향과 목향이 비로소 깊은 산의 봄을 깨운다. 천년의 오랜 목향과 천년동안 불어온 봄바람, 꽃향과 뒤섞인 소백산 부석사로 느즈막한 봄 여행을 떠나본다.

01

최고의 절집 부석사와 아름다운 무량수전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는 답사객들에게 최고의 절집을 고르라하면 대부분 망설임 없이 말하는 곳이 영주 부석사이며, 건축가들에게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고건축물을 고르라하면 이구동성으로 손꼽는 것이 부석사 무량수전이다. 일주문을 지나 천왕문, 범종루, 안양루, 무량수전과 조사당으로 이어지는 전각의 배치가 우선 독특하다. 각각의 건물들은 높다란 석축위에 자리하여 문과 누를 지날 때마다 계단을 오르게 되어 있는데 모산인 소백산의 연봉들이 그러하듯 살짝살짝 몸을 틀어 앉은 것이 재미있다. 무량수전은 불교가 한창 번성하던 고려 중기의 건축물로, 1016년(고려 현종 7년) 원융국사가 왕명으로 부석사를 중건할 때

02

03

04

01 봄꽃이 만개한 부석사의 경내풍경 02 부석사의 창건설화가 스며 있는 부석바위 03 범종각 계단 위로 보이는 안양루와 무량수전 04 단출한 고졸미를 간직한 부석사 조사당

05

06

07

08

09

10

지어졌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로 단아한 주심포이면서도 팔작지붕으로 위엄을 장식했다. 특히 공포를 떠받치는 기둥들을 배흘림으로 처리하여 아름다운 곡선미를 느끼게 하였다. 무량수전의 멋은 내부에서 더 잘 드러난다. 천장을 막지 않고 모든 골격과 부재들을 노출시켜 공간 확대의 효과를 최대한 느끼게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건축물의 특징이기도 하다. 건축은 자리한 공간의 공간감도 중요하다. 무량수전 뒤편 삼층석탑 자리, 혹은 무량수전 앞마당을 조금 비켜나 안양루를 끼고 아래로 펼쳐지는 부석사의 경내풍경은 그야말로 일품이다. 석양이 질 무렵, 사물타종과 함께 바라보는 경내와 먼 산능선의 모습이 봄바람과 섞여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 멋진 절집에는 다음과 같은 창건설화가 전해져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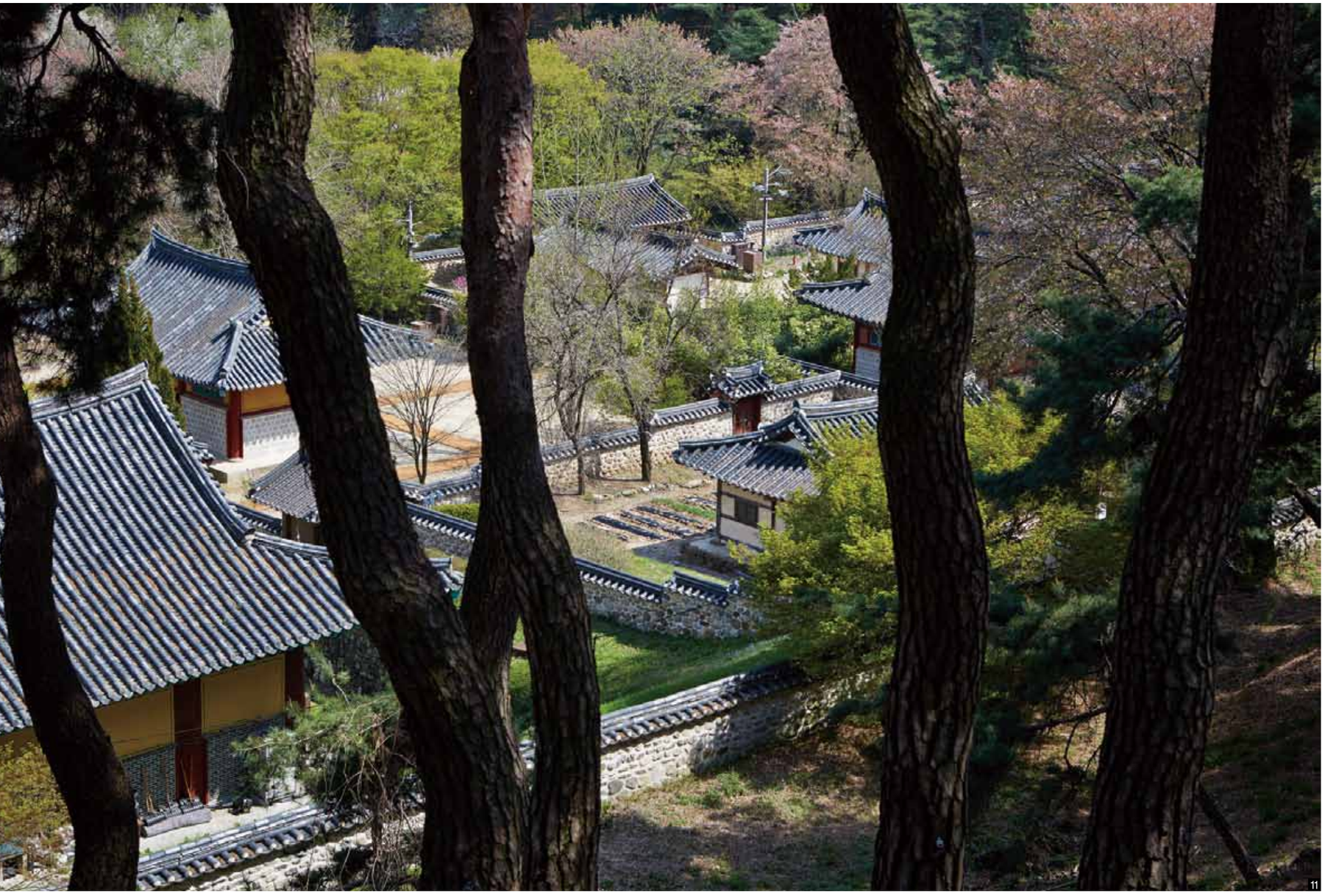
의상과 선묘의 설화

의상대사(625년-702년)는 26세가 되던 해, 당나라 유학길에 나서게 된다. 의상이 중국 땅을 밟은 곳은 산동반도 북쪽의 등주였는데 어느 불교신도 집에서 잠시 머물렀다. 이 집에는 아름다운 처녀 선묘가 살고 있었다. 의상이 적산에 있는 법화원으로 옮겨 아침저녁으로 탁발을 나설 때마다 선묘는 멀리서 의상을 바라보면서 흠모했다. 어느 날, 선묘가 절 밖에서 의상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 마음을 전하려 했으나 의상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마 후 의상은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떠났고, 종남산에서 화엄경을 설법하는 지엄대사의 문하에 들어가 10년간 공부를 한다. 지엄은 의상에게 귀국하여 널리 화엄종을 보급할 것을 당부했다. 의상이 신라로 돌아가기 위해 등주 항구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선묘는 손수 지은 법복을 들고 바닷가로 갔으나 의상을 태운 배는 이미 항구를 떠나고 있었다. 함께 따라 갈 수 없음을 슬퍼한 선묘는 자신이 용이 되어 달라고 하늘에 빌면서 황해바다에 몸을 던졌다. 의상이 귀국 후 처음 세운 절은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이고 그 다음이 봉황산 아래 지은 부석사다. 처음 이 자리에 절을 지으려고 했으나 이미 이곳에 와서 절을 짓고 사는 다른 종파의 불승들이 크게 반발하였다. 의상이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바위로 변한 선묘의 용이 나타나 3일 동안 공중에 머물면서 반대하는 불승들을 향하여 내리칠 듯 위협하니 그들은 결국 새 절을 짓는데 협조하게 되었다. 어리고 착한 선묘의 넋이 용이 되어 의상을 보호하고 불법을 지키는 수호용이 된 것이다. 선묘가 바위가 되어 땅에 내려앉은 바위를 부석이라 하고 선묘의 도움으로 지어진 이 절의 이름을 부석사라고 지었다.

05 서원으로 들어가는 지도문 06 책을 보관하던 장서각 07 최초의 주자학자였던 안향의 영정이 보관되어 있다 08 창살에 새와 물고기 등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09 석등과 무량수전의 현판에서 고찰의 운치가 느껴진다 10 선비들의 기거공간인 일신재와 직방재

최초의 사립학교 소수서원

우리나라에 들어선 최초의 서원은 중종 37년(1542), 당시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영주 순흥 땅에 세운 백운동 서원이다. 중국 송나라 때 세워진 백록동 서원을 좇아 백운동 서원이라 이름 붙였다. 백록동 서원은 성리학을 체계화한 주자(朱子)를 봉향한 서원이다. 주자는 공자에 버금가는 대성현이었는데 주자가 세운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도 불렀다. 백운동 서원은 중국의 성리학을 최초로 들여온 안향을 모신 서원이다. 안향은 사림의 태두로도 기록된다. 안향의 학맥은 정몽주와 이색을 거쳐 김종직 등 사림파로 이어졌으며,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에 이르러 완성을 이룬다. 사림파의 목표는 성리학의 발전과 사회적 실현이었다.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은 고구려의 태학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려 중기 이후에는 국가의 주관으로 중앙에는 성균관을, 지방에는 향교를 세워 교육을 담당했다. 원래 향교는 양반 상민을 가리지 않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양반과 상민의 구분은 뚜렷해졌고 격차도 점점 더 벌어졌다. 양반 자제들은 대중교육의 성격이 짙은 관학을 외면했고, 유명한 스승을 찾아 사숙하는 사교육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서원이 출현하기 시작한 이후 정부의 교육정책은 관학 진흥에서 서원 장려책으로 바뀌게 된다. 서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른바 '사액서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주세붕에 이어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은 백운동 서원에 대해 국가가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명종 5년(1550) 나라에서는 '소수서원' 이라는 현판을 하사하였고 이로서 최초의 국가 공인 서원이 되었다.



11 솔숲 사이로 보이는 소수서원의 풍정이 그윽하다 12 삼층석탑 앞에서 바라본 부석사 전경이 일품이다

소백산 자락의 또 다른 볼거리
문창살이 아름다운 절집 성혈사, 선비문화를 만나는 선비촌

소백산 국망봉 아래 초암사 인근에 성혈사라는 작은 사찰이 있다. 단출한 전각 몇 채가 전부이지만 그 내력을 거슬러가자면 천년은 족히 된다. 이곳에는 내소사 대웅전 문창살, 강화 정수사 대웅전 문창살과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문창살을 지닌 나한전이 있다. 다른 곳의 문창살이 꽃을 새겨 넣었다면 이곳의 문창살은 훨씬 다양한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다. 두루미, 개구리, 물고기, 게, 동자상 등이다. 바라보고 있자면 문창에 새겨진 이생과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보는 것 같다. 소수서원 인근에 자리한 선비촌은 조선의 유교문화체험과 전통가옥체험을 주제로 2004년에 만들어진 일종의 테마공원이다. 영주시 관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고택 12채를 옮겨와 다시 지었고, 강학당, 대장간, 물레방아 같은 전통시설들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특히 전통가옥들은 숙박도 가능하다.

소백산에 철쭉이 만개하는 오월, 소백산 철쭉제가 열린다. 소백산은 속리산 자락을 지나온 백두대간이 태백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이며, 영남에서 중앙으로 향하던 죽령길이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해발 1439m로 긴 능선자락이 이어지는데, 정상부에 철쭉군락이 있어 봄이면 등산객들의 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죽령고개를 출발하여 국망봉과 제1,2연화봉을 거쳐 비로봉에 이르는 종주코스가 있다. 작년부터 소백산 제2연화봉에 대피소가 개설되어 종주를 하려면 1박 2일 코스를 추천한다. 여행의 피로를 풍기온천에서 풀고 오는 것도 좋겠다. 풍기온천은 불소가 함유된 알칼리성 유황온천으로, 풍기의 특산물인 인삼사우나도 좋다.

소백산 등반코스 추천

비로사 코스 : 삼가매표소–비로사–달밭골입구–양반바위–샘터–비로봉(편도 5.6km, 2시간 30분 소요)

희방사 코스 : 희방사매표소–희방폭포–희방사–깔딱고개–연화봉(편도 4.4km, 2시간 30분 소요)

죽령 코스 : 죽령매표소–제2연화봉–연화봉(편도 7km, 2시간 40분 소요)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 http://sobaek.knps.or.kr/ E&C

단오(端午)날에 씨름을 구경하다

일기분류	유산일기
출 전	역진연해군현잉입두류상쌍계신흥기행록(歷盡沿海郡縣仍入頭流賞雙溪新興紀行錄)
시 기	1618년 5월 5일 ~
인 물	양경우, 박유귀
주 제	놀이
장 소	전라남도 고흥군

◆ 조선시대의 씨름

씨름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예의 하나로, 두 사람이 샅바나 띠 또는 바지의 허리춤을 잡고 힘과 기술을 겨루어 상대를 먼저 땅에 넘어뜨리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민속놀이이자 운동이다. 조선시대에 씨름은 대중화되었다. 김홍도(金弘道)의 풍속도 속에 씨름그림(각력도)이 있는 것은 씨름이 그만큼 일반화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김홍도가 조선 후기의 사람인 것으로 보아 이때는 씨름이 나라 안에서 널리 행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 유득공의 「경도잡지(京都雜誌)」,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개성지(開城誌)」 등의 문헌에는 단오에 사람들이 모여 씨름을 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경우가 씨름을 관람한 장소는 그가 머문 고을 객사(客舍)의 널찍한 마당이었을 것이다.

1618년 5월 5일, 양경우(梁慶遇)는 이날 잠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한 후 길을 나서려고 하였다. 그런데 흥양(고흥의 옛 이름)의 수령인 박유귀(朴惟僮)가 와서 출발을 늦춰달라고 했다. 박유귀는 무관 출신의 수령이기는 하나 공부를 나름 하였던 사람이라 말이 통해서 예전부터 친하던 사이였다. 그가 말하길 "오늘은 오월 오일로 명절(단오(端午))입니다. 저희 고을에 비록 자랑할 만한 맛있는 음식은 없지만 어찌 공에게 하루 대접할 음식을 걱정할 정도겠습니까."라고 했다. 양경우는 하루 더 머물기로 하였다.

문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니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다. 박유귀가 하인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다. 그러니 고을 백성 백여 명이 마당으로 들어왔다. 박유귀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이 고을에서는 단오 때 각저희(角觝戱 : 씨름)를 합니다. 그렇게 해온 전통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고을을 방문한 손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박유귀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씨름판이 벌어졌다. 몇 차례 승부가 이어졌는데 그 가운데 피부색이 검고 키가 큰 사람의 실력이 뛰어났다. 다리가 마치 기둥과 같이 튼튼했는데, 연속해서 7, 8명을 이겼다. 더 이상 그에게 승부할 사람이 없어졌다. 양경우 등이 관람하고 있는 곳의 계단 아래에 그가 엎드려 "놀이가 다 끝났습니다."라고 하니, 박유귀가 부일목(浮一木)이라는 나무로 만든 사발을 상으로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키가 작고 말랐으며 얼굴이 하얀 것이 마치 유생(儒生)과 같은 어린 나이의 사람이 나오더니 "저 사람과 겨루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박유귀가 놀라서 물러가게 하려고 했으나 씨름하던 사람들의 간청에 경기를 하게 하였다. 승부가 시작되어 서로 어깨를 붙이고 겨루기에 들어갔다. 바라보니 마치 개미가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보였다. 구경하던 백여 명이 모두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그러던 그때, 갑자기 작은 쪽이 기합을 지르며 힘을 줬다. 큰 사람이 그에 대응하여 움직였다. 한참 그렇게 대치하며 씨름장을 빙빙 돌다가 두 사람이 함께 쓰러졌다. 모래 먼지가 가득 피어 올랐다. 먼지가 가라 앉자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깔고 쓰러져 있었다. 작은 사람이 이긴 것이다. 양경우는 박유귀와 함께 환호하고 크게 웃으며 작은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나이를 물어보니 큰 사람보다 한 살 어리다고 했다.

박유귀가 말하길 "이 사람은 서울의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장사를 위해 이 마을에 왕래하여 안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작은 사람에게 쌀과 베를 상으로 줬다. E&C

– 출처 : 한국국학진흥원 –

아빠로 산다는 것

두 아이의 아빠다. 첫째가 2008년생이니 '아빠'라는 타이틀을 단지도 10년 가까이 됐다. 흙수저 출신이지만 한 2000은 모아놨다며 순진한 아내를 꼬드겨 결혼한 지 3년 만에 첫 딸을 낳았다(고백하자면 결혼 뒤 마이너스 2000만 원짜리 통장을 아내 손에 쥐어주며 부채도 자산이라고 우긴 철없는 청춘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좋은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도 깨달은 점은 많다. 일보다 육아가 더 힘들다는 평범한 진리, 엄마라는 존재는 아빠가 가랑이 찢어지게 노력해도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등. 이 글은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로 점철된 '아빠 낙종기'다.

극한 직업, 전업아빠

첫 딸이 세상에 나온 날 모든 아빠들이 그러했듯이 눈물이 나왔다. 알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은 잠시. 육아는 오롯이 휴직 중인 엄마의 몫이었고, 아빠는 이른바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핑계에 늘 바빴다. 밤 12시가 넘어 돌아오기가 일쑤. 잠자는 사랑스런 아이의 얼굴을 볼 뿐, 울며 보채는 걸 달래고 먹이고, 치우는 것은 아내의 몫이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돈 벌어 오잖아"라고 뻔뻔히 말했다.

은행원인 아내가 2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때가 됐다. 양가 부모님이 맡아줄 형편이 안 됐고,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농담 삼아 "내가 한번 육아휴직 해볼까"라고 한 말이 씨가 됐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권했고, 나 역시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딸을 남의 손에 맡기기 싫었다. 회사에 넌지시 육아휴직 얘기를 꺼냈다. 부장은 조용히 불러 뭐가 불만이냐고 물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7년 전만 해도 남성 육아휴직은 적어도 한국사회에서는 금기어였다. 그래도 사나이가 한 번 뽑은 칼인데 뭐라도 썰어야 했다.
"1년은 그러니 6개월만 하겠습니다."

몇몇은 격려해줬고, 몇몇은 혼자만 애 키우느냐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렇게 시작된 육아휴직은 정말 힘들었다. 지금에야 웃으며 뒤돌아보지만 그때는 이등병 생활보다 힘들게 느껴졌다. 우선 애 밥 3끼 챙겨 먹이다 보면 하루가 다 갔다. 중간 중간 사고치는 아이 뒤치다꺼리에 집안일을 조금 할라치면 어느새 잘 시간이 됐다. 집에 아이와 둘이 있으면 연애 초기처럼 아내가 무척 그리웠다. 아내가 회식이라고 하면 왠지 화가 났다. 주 5일 음주를 즐기던 내게 무알콜 생활은 주부 우울증을 가져다줬다. 그러나 힘든 것보다 즐거움이 컸다.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는 것이 보이고, 품에 안겨 잠들 때의 포근함, 내가 발라준 조기 살을 덥석덥석 잘 받아먹을 때의 성취감. 하루하루 바쁘게 경쟁하고 다른 기자보다 조금 더 앞선 기사를 쓰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양 살아온 내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렇게 6개월은 내 아빠 경력에 작은 토대를 닦아줬다.

시련은 아빠를 단련시킨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절 둘째 딸이 생겼다. 2012년 여름, 6개월의 파업 막바지 즈음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았다. 둘째에겐 미안하지만 그때는 기쁨도 있었지만 '삶의 무게가 더 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듬해 봄, 둘째 딸이 태어나고 경제부처 출입을 위해 세종시로 가족과 함께 이사를 오면서 비로소 둘째의 미소에 푹 빠져들었다. 둘째는 아빠의 절망과 희망의 시기에 징검다리였다. 둘째는 언니만큼 오목조목 예쁜 얼굴은 아니었지만 '볼매(볼수록 매력)'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장인어른에게 육아를 맡기고 맞벌이 부부는 정신없이 일에 몰두했다. 먼 훗날 너희들을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지난해 초 둘째가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릴 때, 그 지친 눈빛으로 출근하는 엄마아빠를 잡을 때 휑하니 뒷모습을 보여주기 바빴다. 일주일 뒤 둘째가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뒤에는 무서움과 미안함이 겹쳤다. 첫째 때도 그렇지만 나는 결혼 후 줄곧 아빠보다 기자가 우선이었다. 아이가 아픈 건 모든 게 내 탓 같았다. 그렇게 아픈 아이를 둔 아빠의 생활은 시작됐다. 항암치료가 시작되고 둘째가 까까머리가 되고 나를 보며 씩 웃을 때 비로소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삶의 가장 큰 목표는 둘째를 잘 키워 나를 닮지 않은 멋진 놈과 결혼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수백 번의 채혈과 어른도 참기 힘들다는 골수검사와 독한 항암치료를 둘째는 잘 견뎠다. 아직 치료 중이지만 통원 치료를 할 정도로 상태는 좋아졌다. 지난 1년 동안 시련은 컸지만 그만큼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고, 아빠는 철이 들었다. 불행이 찾아온 줄 알았는데 그 불행을 이겨 내면서 더욱 행복해졌다. 완치를 위해서는 1년 반의 치료기간이 남아있지만 지금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면 언제가 끝은 올 것이다.

아이들은 자라고 아빠는 행복하게 늙는다

10살과 5살 두 딸은 여러 면에서 참 다르다. 첫째는 4살 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한글을 터득한 공부머리(?)인 반면, 둘째는 노는데 일가견이 있다. 첫째는 마음도 여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동생이 나아 있으면 좋겠다고 종종 눈물을 보인다. 둘째는 그런 언니를 무심하게 쳐다보며 하루 종일 엄마를 괴롭히는데 힘을 쏟는다. 둘은 하루도 빠짐없이 싸운다. 주로 욕심 많은 둘째가 언니 인형을 뺏거나 언니 방을 어지럽히면서 소동이 벌어진다. 엄마는 언니 편을 들고 아빠는 둘째 편을 들면서 서로 달랜다. 첫째는 숙제를 미루고 핸드폰을 하다가 엄마에게 눈물 쏙 빠지게 혼나기도 한다. 공무원인 부모를 따라 외국에서 살다온 아이들이 많아 첫째가 영어를 잘 못 따라간다며 걱정하는 아내의 표정을 나는 지켜보기도 한다. 며칠 전에는 별생각 없이 첫째 아이의 엉덩이를 툭 쳤는데 첫째는 앞으로는 허락 없이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며 내게 엄중 경고했다. 육아휴직 할 때 말도 제대로 못했던 딸이 어느새 소녀로 커가고 있구나 생각했다.

둘째 아이가 아프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이다. 아내는 아직 기저귀를 못 떼고 언니보다 한글 깨우치는 게 느린 둘째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항암치료에 힘들어하던 민머리 사진을 본다고 한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건강한 아이들에 대한 감사함이 밑바탕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라고 아빠는 행복하게 늙는다. 봄날은 아직 가지 않았다. 5월이다. 공부 공부만 하지 말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까운 자연으로 나들이 한번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E&C

TV가 나를 감시한다? 전자기기 도청 어디까지

북한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붉은별'이라는 자체 개발 운영체제(OS)를 사용한다. 2008년 처음 출시된 붉은별은 개방형 OS인 리눅스를 기반으로 북한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2013년에 3.0버전까지 공개됐다. 붉은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OS인 '윈도우'처럼 그래픽 사용자 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구성도 이와 유사하다. 그럼 북한은 왜 굳이 OS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하고 있을까. 이는 윈도우 프로그램의 보안 문제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마트폰·태블릿PC·스마트TV…사생활 해킹 도구가 되다

북한이 우려하던 일이 최근에 실제로 벌어졌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컴퓨터 OS와 스마트폰, 태블릿PC는 물론 심지어 스마트TV까지 동원해 개인의 사생활을 해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CIA 사이버 정보센터 문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OS,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삼성의 스마트TV 등이 CIA의 도·감청 도구로 활용됐다.

북한은 보안을 위해 자체 OS 프로그램인 '붉은별'을 사용한다.(출처 : KCC/wikimedia)

미국의 정보기관은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도청망을 가동하고 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도청한 것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은 일반 시민의 사적인 대화 내용에까지 뻗쳐 있다는 사실이 전직 보안 전문가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친척을 둔 아랍계 미국인의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 감청 자료는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 이스라엘로 넘겨지기도 했다. 꼭 테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위험하고 급진적인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포르노 웹사이트의 방문 기록이나 불륜 등의 사적인 내용까지 모두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기기 통한 도감청, 그 원리는?

이처럼 누군가의 일상을 모두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를 도·감청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 일반인들 역시 언제 어떻게 감시 당할지 몰라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과연 전자기기를 통한 도·감청은 어디까지 가능하며, 그 원리는 무엇일까.
우선 컴퓨터 OS나 스마트폰에 도·감청을 위한 악성 프로그램이 감염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와 마이크가 주인도 모르게 활성화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대화 내용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비롯해 사용자의 위치 정보까지 모두 유출될 수 있다.

스마트TV를 통한 해킹도 원리는 똑같다. TV 속에 침투한 악성코드가 정상적인 TV 앱처럼 작동하면서 주변의 음성을 포착해 녹음한다. CIA에서 개발한 '우는 천사'란 악성코드의 경우 '위장 전원 꺼짐' 기술을 이용해 TV가 꺼져 있을 때도 주변의 소리를 도청해 CIA의 비밀 서버로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이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수석 고문 켈리언 콘웨이는 '전자레인지도 감시 카메라로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전자레인지가 사용하는 마이크로파에 있다. 마이크로파는 마치 레이더처럼 특정 유형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리 에너지가 과자 봉지 같은 사물의 표면에 일으키는 미세한 떨림을 고속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어떤 소리인지를 재현할 수 있다. 미국 MIT 전기컴퓨터공학과의 연구진은 5미터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된 감자칩 봉지의 떨림만으로도 그 과자 봉지에 전해진 미국 전래동요의 한 구절 가사를 또렷이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경우 콘웨이 수석 고문의 주장처럼 감시용으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로는 이미지화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자레인지는 기본적으로 문을 닫은 상태에서만 작동하므로 마이크로파의 외부 방출이 어렵다. 또한 전자레인지에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달려 있지 않을뿐더러 스마트TV처럼 인터넷과 연결된 제품도 거의 없으므로 감시 장치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로부터의 해킹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다면 OS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구형 버전일수록 개발된 도·감청용 악성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비밀번호 등의 보안 설정을 자주 바꾸고, 백신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를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E&C

– 출처 : KISTI의 과학향기 –

Culture

Festival

아침고요수목원 봄나들이 봄꽃축제 2017

기 간 : ~ 5월 31일 장 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

수목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투명한 빛의 크로커스와 백목련의 꽃, 노오란 산수유가 풍성하게 피어 상춘객을 맞이한다. 100년 이상된 분재작들이 전시되어 있는 분재정원에도 봄이 찾아와 파릇파릇한 새 잎이 돋아나고 있다. 분홍빛 꽃 잔디가 하나둘씩 얼굴을 내미는 억새월을 지나면 진노랑의 귀여운 수선화가 가득 피어나 새봄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 주고, 꽃샘추위로 닫혀있던 매화꽃의 꽃망울은 속살을 들어내며 그윽한 향기를 뿜는다. 느긋하게 수목원을 거닐다 보면 봄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튤립 6만본이 하늘길, 하늘정원, 달빛정원을 빼곡히 수놓고 있어 알록달록한 색감의 튤립은 봄의 설레는 기분을 한껏 고조시킨다. 특히, 튤립과 교회가 어우러진 달빛정원은 새봄의 청명함을 담고 있어 아름다운 4월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 수목원의 대표정원인 하경정원은 각 개체들의 어울림과 절제가 자연스럽게 표현된 정원으로 풍광이 뛰어나며 200여 종의 꽃과 100여 종의 목본성 식물을 만날 수 있다.

http://www.morningcalm.co.kr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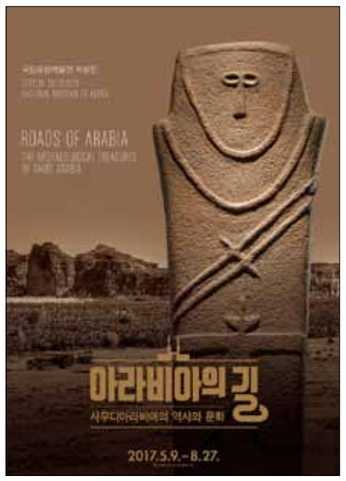
아라비아의 길

기 간 : 5월 9일 ~ 8월 27일 장 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는 그간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전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사우디아라비아관광문화유산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기원전 4천년 즈음에 제작된 사람 모양의 석상부터 이슬람의 성지 메카의 카바 신전을 장식했던 거대한 문을 포함한 466점의 다양한 전시품들이 선보인다. 아라비아는 고대부터 향 교역의 중심지였다. 이슬람교가 창시된 이후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선사 시대부터 오아시스에 핀 다양한 문명들, 이슬람교의 탄생과 20세기 초 사우디아라비아의 건국에 이르는 긴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사막과 석유의 땅으로만 인식되었던 아라비아를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www.museum.go.kr



Book

아홉 살 마음 사전

"내 마음을 말하고 싶어!"

어린이를 위한 감정 표현 사전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린이에게 어려운 일이다. 최근 들어 많은 어린이가 '괴롭다' '불쾌하다' '속상하다' '억울하다' 등 다양한 표현 대신에 '짜증 난다'는 말을 자주 쓰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단순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쉽다. 부정확한 감정 표현은 친구나 부모 또는 교사와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아홉 살 마음 사전』은 '감격스럽다'부터 '흐뭇하다'까지 마음을 표현하는 말 80개를 사전처럼 가나다순으로 담아낸 책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을 보여 주면서 그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을 소개한다. 어린이 독자들은 간결한 글과 사실적인 그림으로 표현된 상황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감정을 실감 나게 느끼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 표현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설명을 읽으며 정확한 뜻을 이해하고, 감정 표현이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법을 익힐 수 있다. 『아홉 살 마음 사전』을 읽고 다양한 감정 표현을 알게 되면 어린 독자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성우 글/김효은 그림 | 창비

Movie

특별시민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거야"

오직 서울만 사랑하는, 발로 뛰는 서울시장 '변종구'(최민식)

하지만 실은 어느 정치인보다도 최고 권력을 지향하며 이미지 관리에 철저한 정치 9단이다.

선거 공작의 일인자인 선거대책본부장 '심혁수'(곽도원)를 파트너로 삼고, 겁없이 선거판에 뛰어든 젊은 광고 전문가 '박경'(심은경)까지 새롭게 영입한 변종구는 차기 대권을 노리며, 헌정 사상 최초의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한다. 하지만 상대 후보들의 치열한 공세에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까지 일어나며 변종구의 3선을 향한 선거전에 위기가 거듭되는데...

선거는 전쟁, 정치는 쇼!

1,029만 명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또 한 번의 쇼가 시작된다!

상영중

KEPCO E&C News

제4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제42기 정기주주총회가 지난 3월 28일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주주들의 관심 속에 개최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2016년도 영업실적 보고, 제42기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주당 110원의 현금배당을 의결하였다. 또한 우리 회사가 2017년 2월 2일자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정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반영하고, '원전 해체 관련업'과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업' 수행을 위한 정관 개정안 등 모든 안건이 원안 승인되었다. 회사는 2017년에도 기존 사업의 면밀한 수행과 신규 사업개발에 역점을 다하여 회사의 성장을 주주와 함께할 수 있도록 기업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17년도 제4차 이사회 개최

2017년도 제4차 이사회가 지난 3월 28일 경영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경영진 및 비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결안건으로 사채발행(안) 및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한동대와 기술협력 워크숍 실시

회사는 3월 22일 한동대와 기술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월 14일 한동대와 우리 회사간 있었던 기술협의회 후속 회의로서 보다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원자로설계개발단 설계그룹장을 비롯한 관련 팀장과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 학부장 및 전공교수가 참석했으며, 박구원 사장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워크숍에서 우리 회사는 Canned Motor Pump 개요, 원전 출력운전 자동화 개념, 증기발생기 현상분석, CASK 낙하해석 등 협력 안건을 제안하였고 한동대는 협력안건 별로 기계제어공학부의 관련 연구내용을 소개했다. 회사와 한동대는 향후 기술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2017년 기술전문교육 기본과정 실시

2017년 기술전문교육 기본과정 교육이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인재개발교육원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발전소 설계엔지니어링 기본지식 교육을 통해 에너지산업을 선도하는 직무전문가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기술전문교육 기본과정은 입사 2~4년차 기술직 및 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총 133개 교과목을 325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회사는 이번 교육이 분야별 설계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하우 전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해 업무효율성 확대와 분야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상황에서 각 분야별 독자적 해결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헌혈로 나눔문화 실천

–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헌혈캠페인 실시 –

우리 회사는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회사는 지난 3월 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공동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본사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행사는 헌혈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발길이 이어졌다.

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안정적인 혈액수급 지원과 임직원의 생명존중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1–2회 헌혈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회사의 누적 헌혈참여자 수는 1,230여명으로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또한,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이 무상으로 기부한 헌혈증서는 병원,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기증함으로써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회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행사 실시 및 캠페인 시행 등을 통해 혈액수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편, 회사는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활동 파트너로서 사랑의 헌혈, 1m 1원 후원 걷기, 사랑의 집짓기, 노후 버스승강장 개보수 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제14회 전기사랑 마라톤대회 참가

올해로 제14회째를 맞은 전기사랑마라톤대회가 지난 4월 8일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구원 사장을 비롯하여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마라톤 하프코스(21.0975km), 10km코스, 5km코스에 참석한 직원들은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링 회사로서 전기인들의 화합 한마당의 중심에 섰으며, 전기산업계의 상호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도 제3차 친절 모범직원 선정

회사는 생산성 향상과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밝고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3차 친절 모범직원을 선정하였다.

구 분	선 정 자		추 천 자	
친절직원	원자력설계품질점검팀(책임급)	이 선 규	원자력설계품질점검팀(주임급)	이 경 희
	원자로)사업개발처(원급)	박 예 슬	원자로)사업관리실(선임급)	진 혁
모범직원	원자력)전기기술그룹(선임급)	이 현 지	원자력)전기기술그룹(주임급)	한 일 남
	(주)원우(과장)	박 정 대	원자력)사업관리실(책임급)	문 수 창

법인카드로 개인비용 처리를?

사적경비의 회사비용 처리

만화로 보는 윤리행동강령!

사적경비의 회사비용 처리

법인카드를 내 맘대로 쓰면 안되나요?

사적인 비용을 계산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법인카드는 엄연한 회사 재산입니다.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지적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Inside Outside

참사랑봉사단

봄맞이 대청소 실시

– 김천 우래호수공원 일대 환경정화 활동 –

회사는 지난 4월 4일 '봄맞이 대청소' 행사를 실시하였다. 박구원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70여명은 이날 2시간여 동안 회사 주변 우래호수공원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회사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구원 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직원들과 함께 봄맞이 대청소를 하게 되어 큰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환경을 위해 다함께 솔선하자"고 말했다.

사우 애경사

결혼

한재경 대리

나보영 대리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김상인 과장 : 3월 25일 The–K 서울호텔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설윤주 대리 : 3월 25일 The–K 서울호텔
- 원자로)유체계통설계그룹 허진 부장 자녀 : 3월 25일 삼정호텔
- 원자로)기계설계그룹 나복균 상무 자녀 : 3월 25일 마리드블랑(신라스테이)
- 원자력)설계정보기술실 나보영 대리 : 3월 25일 마리드블랑(신라스테이)
- 플랜트)전기계측기술그룹 이재원 사원 : 3월 26일 베어캐슬컨벤션웨딩홀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양준석 대리 : 4월 8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한재경 대리 : 4월 8일 발리오스 승마클럽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백일홍 사원 : 4월 8일 로프트가든
- 플랜트)기계배관기술그룹 이의준 사원 : 4월 15일 파티오나인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최혁순 대리 : 4월 15일 피에스타 귀족
- 원자력)토목건축기술그룹 박만석 사원 : 4월 15일 벨마리에웨딩홀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박아영 사원 : 4월 15일 한양대학교동문회관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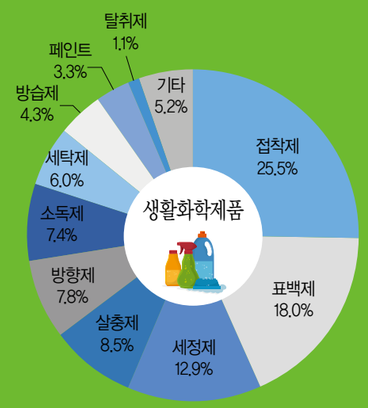
- 원자력)기계기술그룹 정재현 대리 부친상 : 3월 1일 삼성병원
- 원자력)전기기술그룹 김태훈 차장 모친상 : 3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 원자력)배관기술그룹 방대영 부장 부친상 : 3월 5일 전북대학교병원
- 원자력기술그룹 이창영 처장 형제상 : 3월 7일 부천장례식장
- 미래전력기술연구소 지계광 상무 부친상 : 3월 8일 김천의료원
- 사옥관리실 김기진 부장 부친상 : 3월 9일 한강성심병원
- 플랜트)토목건축기술그룹 박대현 부장 모친상 : 3월 15일 사천 삼천포서울병원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각종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지만, 품목별 빈발하는 위해 유형이나 올바른 사용법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위해정보 총 1,529건을 분석했다.

* 연도별 현황: 2014년 445건 → 2015년 432건(2.9%↓) → 2016년 652건(50.9%↑)



■ 접착제·표백제·세정제 순으로 위해발생 많아

위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품목은 '접착제'로 전체의 25.5%(390건)를 차지했고, 이어 '표백제' 18.0%(275건), '세정제' 12.9%(198건), '살충제' 8.5%(130건), '방향제' 7.8%(120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품목별 위해유형으로는 '접착제'의 경우 뚜껑을 열거나 사용 중 내용물이 눈에 튀거나 점안제로 오인하고 넣어 '안구 손상'을 입은 경우가 52.8%(206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뜨거운 글루건이나 접착제의 화학 성분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경우도 30.0%(117건)를 차지했다.

'표백제'와 '세정제' 역시 사용 중 부주의로 '안구 손상'을 입은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각 45.8%, 35.4%)을 차지했고, 이어 음료나 의약품으로 오인하여 삼킨 사고(각 37.1%, 28.3%)도 많았다.

■ '10세 미만' 어린이, '살충제' 삼킴 사고가 많아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27건 분석결과, '10세 미만' 어린이가 30.9%(410건)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30대' 15.4%(204건), '50대' 13.6%(180건), '40대' 12.7%(16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전체 '살충제' 사고(130건)의 56.9%(74건)를 차지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살충제' 관련 안전사고가 많았다. 대부분 가정 내 방치된 바퀴벌레약이나 개미 살충제를 빨아 먹거나 삼켜 발생한 만큼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활화학제품 사용 가이드라인

▶ 구입시

- ○ 생활화학제품의 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부작용 및 응급조치 요령 등 제품관련 정보 및 리콜정보 등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입합니다.
  - [리 콜 정 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 [제품 관련 정보]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 가정 내 보관시

- ○ 특히,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 ○ 생활화학제품은 반드시 원래의 용기 그대로 사용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보관하는 용기에 덜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시

- ○ 접착제 개봉시 노즐을 자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하는 제품의 경우 노즐을 가볍게 두드려 내용물을 아래로 떨어뜨린 후 분출구가 얼굴이나 몸을 향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개봉합니다.
- ○ 순간접착제 사용시 비닐 장갑을 끼고 사용합니다. 면장갑의 경우 화학반응이 발생하여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 표백제나 세정제 사용시 장갑, 앞이 막힌 신발,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 ○ 염소계 표백제를 산성제품이나 암모니아와 같은 다른 세제와 섞을 경우 화학작용에 의해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섞어 쓰지 않습니다.
- ○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눈이나 목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환기합니다.

▶ 위해 발생시

- ○ 생활화학제품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눈을 비비지 말고 생리식염수, 수돗물 등 흐르는 물에 10~15분간 세척하고, 추가적인 안구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 ○ 생활화학제품을 마셨을 경우 억지로 구토하게 하면 토사물 흡인, 식도 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구토하지 않고 제품 성분 확인을 위해 병원 방문시 제품을 가지고 가며, 삼킨 양 등을 의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아야!

Writer **이 서 진** 홍보실 박다경 대리 자녀(율곡초 3)

아야! 책상에 부딪쳤네

아야! 책에 발이 깔렸네

아야! 책꽂이에 부딪쳤네

아야! 서랍에 손이 끼었네

아야! 옷장에 몸이 끼었네

으아앙! 왜 나만 다치는 거야!?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에너지기술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신입(인턴)사원 채용

채용인원 : 00명
접수기간 : 2017년 5월 1일(월) ~ 5월 15일(월)
채용분야
대졸수준 – 원자력, 기계, 전기, 전자/계측제어, 전산, 인간공학/산업공학, 토목, 지질, 기상, 소방, 안전, 사무
고졸수준 – 일반고(문/이과), 마이스터고, 정보고, 검정고시 등

채용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기술 홈페이지 (www.kepco-enc.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인사팀(Tel. 054-421-3333~4)